



## 대한민국 교육의 초석, <공부의 제왕>

이지은

최근에 강준만 씨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읽었다. 언론계통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읽어보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들었으며, 실제로 이 책은 대중문화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데 그쳤던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획일화와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한계를 지닌 대중매체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미래에의 전망은 어떠한지 두루 두루 소개하는 책이었기에 21세기 주체적인 문화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책은 간접경험의 가장 중요하고도 탄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그중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 부분은 TV 파트인데, KBS PD인 고희일 씨의 항변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미래의 언론인인 나도 한번쯤 고뇌해볼 만한 소재라고 여겼기에 소개하려 한다. 「시청자의 이중성이 서글프다」라는 그의 글을 보면, ‘시청

자가 원하는 방송에 대해 알기 위해 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교양적인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 예능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하는 반면, 그러한 시청자에 '주문'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선호도를 알아보려고 조사해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극단적으로는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의 10배에 달하기도 한다. 어느 박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시청자의 억지 아닌 억지 속에 풍랑 속 돛단배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PD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됐다.

이 부분을 읽던 중 뇌리를 스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MBC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교적 짧게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공부의 제왕'이 그것이었다. '공부의 신' 사이트를 제작, 전국 0.001%, 최상위권이 라는 타이틀 아래 학생들에게 공부비법을 제공하는 강성태 공신을 주로 하여,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40여 일 동안 합숙하며 성적을 향상시키고, 바른 공부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프로그램이었다. 지금 수험생활을 하는 나에게 가뭄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프로그램이었기에 매주 보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한 시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중에 매우 열심히 공부했던 행복한 기억도 있다. 하지만 시청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많기에 몇 자 적어보려 한다.

### 같은 예능 프로, 속은 교양 프로! 표리부동의 전범

공부의 제왕이 '실력향상 리얼프로젝트'라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 소속이다. 기획의도와 다른 노선을 탔기 때문에 PD는 '지식전달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그 결과 다분히 오락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좋다. 그러나 웃음을 주기 위한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는 것 같다. MC를 소개할 때 MC의 학창시절 성적표를 보면서 유머를 늘어놓는다거나, 크리스마스에 합숙생들이 거리의 화려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합숙소에 와서 공부할지 숨어서 지켜보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그것이다. MC들의 합숙소 체험도 마찬가지였다. MC 자질을 갖추기 위해 아이들의 고통을 체험해본다고 했는데,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그저 웃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볼 때면, 연습장을 펴두고 펜을 쥌 채로 TV앞에 앉아 리모컨을 옆에 두고 보면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면 멈춰서 적기도 하고 놓치면 앞으로 돌려 보면서 적기도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공부의 제약을 시청하는 학부모들과 많은 학생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분히 오락적인 요소들이 방영되는 비중이 컸던 날에는 텅 빈 연습장을 바라봐야만 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치열하던 주중의 모습에 대한 대가가 유난히도 적은 그런 날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허탈했달까. 만약 오락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했다면 보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TV를 본다는 안도감에 프로그램도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새로움을 줘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프로그램의 패널이 유난히도 바뀌었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가수 윤하, 캣츠의 김지혜, 솔비, 배슬기, 크라운제이라든지 굵직굵직하게 초신성, 슈퍼키드 등 그룹가수들까지 섭외하는 등 애쓰는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엔 모자랐다. 계속 새로운 패널들이 나오다가 나오지 않으면, ‘사탕 먹은 뒤에 수박을 먹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멍멍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등장하는 패널들이 공부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항을 수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섭외에 노력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간에 강수정을 MC로 영입해 프로그램 부상을 다시 한 번 꿈꿔보았지만, 결국 예능 프로그램 황금시간대의 높은 시청률을 내기에는 모자랐다. 결국 패널의 다채로움이 프로그램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up>4)</sup>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방송사에서 기획의도에 따른 대중들의 이익과 시청률로 인한 방송사의 이익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었던 프로그램의 PD가, 능력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에 좌절하는 한계를 지닌 신라의 6두품과 같이 느껴졌다. 고희일 씨의 항변을 읽고 이 프로그램이 생각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합숙하는 학생들의 선발 기준의 한계

공부의 제왕은 전국의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합숙생 신청을 받았다. 신청하는 모두가 ‘내가 될까? 과연 뽑힐까?’ 하는 설렌 마음을 가져보았지만 3번 회의의 9명 모두 남학생들로만 뽑혔다. 물론 함께 합숙하는 강성태 공신이 남성이니까 남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며, MBC에서 촬영팀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는 수도권이어야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4학년이었던 강성태 공신의 동선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방송국, 공신과 학생의 학교, 합숙소, 이 세 곳이 지역적인 커넥션을 가져야 했다. 실제로 공부의 제왕 1기는 모두 서울시 구로구의 우신고등학교에

---

4) 강준만, 『대중문화와 결과 속』(서울: 인물과사상사, 2003)에서 부분 인용.

재학 중이며, 구로구는 MBC가 있는 여의도와 크게 멀지 않다. 2기 학생들의 학교 역시 서울시 금천구의 문일고등학교였으며,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가 나란히 위치한다는 점을 볼 때 합숙생 선발 시 성별·지역별 차별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한된 이 좋은 기회가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자공신이 필요하다. 여학생들도 여자공신과 함께 합숙하며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이 합숙하는 모습과 여학생들의 합숙하는 모습을 대조해가면서 보여주면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면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시청자들도 보다 많은 공부 방법, 보다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에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자공신을 쓴다고 해서 지역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학생이 재학 중에 서울에서 합숙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지역적인 요소를 겨울방학 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덕적도, 대구 그리고 밀양에 사는 학생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고향에서 갖기 어려웠던 진로탐색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은 방학에 지역의 남학생, 여학생들을 두 배의 인원으로 뽑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적향상이라는 모토와는 어울리지 않는 커리큘럼:

지나치게 짧은 텀(term)과 반복되는 급박한 전개

성적이 하루아침에 오른다면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은 생각보다 쉬이 오르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구성상 합숙생들은 40일 동안 비약적인 점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빠른 타성에 젖어버린 현대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건 아닌지. 결국 프로그램은 비약적인 성적향상보다는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2기 아이들의 성적을 발표할 때, 박태준 군의 언어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 박태준 군의 언어영역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일찍 발표된다면, 다른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도 적게 오를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외국어-수리 순서로 발표하지 않고 성적향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뒤죽박죽 발표한다. 1기 장건희 군은 외국어 영역 점수(+28)가 가장 많이 올라서 언어-외국어 순으로 발표했고, 최준호 군은 언어영역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서 그의 성적은 수리-외국어-언어(+34)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2기 때는 세 명이 공통적으로 언어에서 향상을 보였으므로 수리-외국어-언어의 순서로 발표했다. 시청자의 눈에 제작진의 꼼수가 눈에 보였기에 한 번 실소(失笑)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반복되는 구조에 프로그램의 묘미도 떨어졌다. 합숙생 찾으러 나서는 데 한 회, 공신에게 학습방법을 솔루션받는 데 한 회, 중간테스트 한 회, 최종테스트 한 회 등 비슷한 커리큘럼을 세 번 봐야 했다.

	1기	2기	3기
학생 만남	1회(2007,11,10)	6회(2008,12,22)	11회(2008,01,26)
개인 솔루션	2회(2007,11,17)	6회(2008,12,22)	개인학습법 12회(2008,02,02)
중간테스트	3회(2007,11,24)	수학, 영어테스트 8, 9회(2008,01,05,12)	-
공부 방법	4회(2007,12,01)	-	14회(2008,02,23)
최종모의고사	5회(2007,12,15)	10회(2008,01,19)	-

## 공신, 강성태의 목소리를 높여라

단연 눈길을 끈 점은 공신 강성태. 프로그램의 간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MC들이 웃고 떠들 때 대사도 주지 않는다. 당위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질문하고 MC들은 그의 말에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다. 시청자들이 고개 끄덕일 말만 적절히 해주는 권위자로,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전문가로밖에 보지 않는다. 실상 정말 어깨가 무거웠을 사람은 그라고 생각된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이 처음인 것 같고, 살얼음 내딛듯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본인도 재학 중이면서 남의 지식 아홉을 데리고 밥을 지어가며, 깨워가며 혼내가며 네 달을 지내왔을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PD는 교육에 일가견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신 강성태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꾸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름 교육과 학습법에 대해 항상 연구해왔고, 사이트까지 꾸려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았겠다. 항상 그가 강조하는 것이 ‘시간차이론’이다. 즉,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계속 오르지 않아 보이는 성적도 꾸준한 노력 속에서 언젠가는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그런 그가 합숙 40일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자고 제안했을 것 같진 않다. 아니, 어쩌면 성적향상보다는 더 편한 공부, 그리고 그의 모토대로 더 신나는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원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이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비교적, 아니 절대적으로도 짧았던 14회라는 방영기간 동안 난 배운 것이 많았다. 공신열전을 통해서 프린스턴 장학생 김현근 씨의 주옥갈

은 말도 들을 수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이평화 씨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코끝 찡함과 함께 다시 학구열을 불사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3이 되는 이 시기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의지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나중에 수험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이 프로그램도 이렇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의 한 컷이 되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을 위한 일각의 노력이 하나 둘 모이고 모여서 더욱 나은 우리나라 교육이 존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의 초석이 된 공부의 제왕의 종영에 아쉬워하며 글을 마친다.